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CNNBusiness: 컨퍼런스 보드, ‘미국인들 일자리에 불안해한다’
- Bloomberg: 연준 관리들 향후에도 큰 폭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둬
- Bloomberg: 연준 이사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 다른 입장

### [미국 대선]

- TheEconomist: 도널드 트럼프 vs 카밀라 해리스: 여론조사 선두는?
- CNNBusiness: 4백명의 이코노미스트와 전직 관료, 해리스 지지

### [물류]

- NYT: 다가오는 동부 항만 파업에 경제 흔들릴 수 있다

### [부동산]

- Bloomberg: 미국 주택 가격 상승 둔화
- Bloomberg: 상업용 부동산 시장 회복세

### [에너지]

- Bloomberg: EDP “데이터 센터가 재생 에너지 수요 주도”

### [중국 경제]

- WSJ: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 조치
- TheEconomist: 중국 AI 기업, 칩 규제에 영리하게 혁신 중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전 세계 공장에서 4백만대 이상의 로봇이 일한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CNNBusiness: Americans are fretting over the job market 컨퍼런스 보드, '미국인들 일자리에 불안해한다'

-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현재의 경제 상태와 향후 일자리 시장에 대해 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기관이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8월에 상향 조정된 105.6에서 9월에 98.7로 하락했다. 하락 수치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보다도 더 안 좋은 수치다.
- 컨퍼런스 보드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Dana Peterson은 "9월 수치는 지난 2년간 유지해 오던 좁은 폭의 범위 가장 하단에 위치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8월 이래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신뢰 지수 다섯 가지의 요소 모두 악화된 수치다."라고 덧붙였다.

CNNBusiness 기사

## Bloomberg: Fed Officials Leave Door Open to Another Large Interest-Rate Cut 연준 관리들 향후에도 큰 폭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둬

- 연준 관리들은 현재의 금리 수준이 여전히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향후에 추가로 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특히 시카고 연준 총재인 Austan Goolsbee는 "향후 12개월 동안에 우리가 현재의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내리려면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 그는 현재의 연준 벤치마크 금리가 중립 금리보다 '수백' 베이스 포인트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중립 금리 수준은 경제 성장을 진작시키거나 제한할 필요가 없는 금리 수준이다.
- 그와 그의 동료 관리들은 지난 9월 18일 연준의 0.5% 금리 인하의 반복을 선호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가 결정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리 조정 날짜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11월 6일과 7일에 결정된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Bowman Says Fed Must Keep Eye on Inflation, Upside Risks Remain 연준 이사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 다른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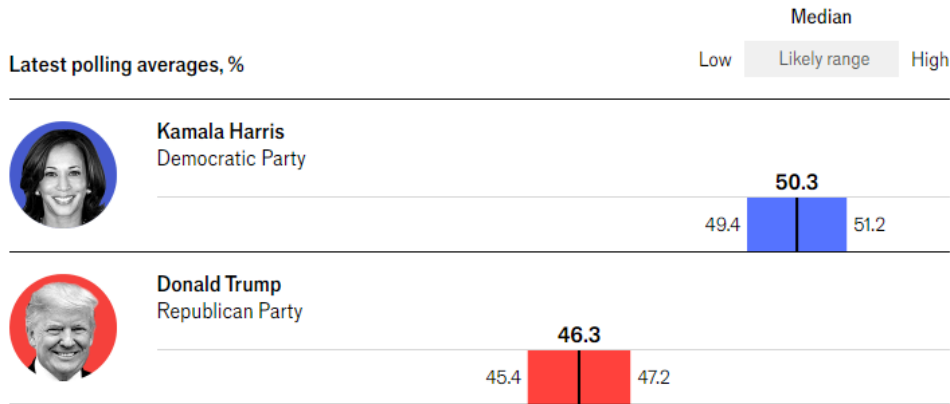
- 연준 이사인 Michelle Bowman은 "연준이 조절된 속도(measured pace)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 리스크가 여전히 있으며 노동 시장이 크게 둔화되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그는 화요일 캔터키 은행협회에서 “연준이 두가지 목표(고용과 물가)를 달성하는데 있어 리스크를 살펴보면, 특히 노동 시장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물가 안정 리스크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에 0.5%의 금리 인하에 반대했으며 더 작은 폭의 인하를 찬성했다.
- 반면 다른 동료 관리들은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대체로 균형 잡힌 상태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대선]

TheEconomist: Donald Trump v Kamala Harris: who's leading the polls?  
도널드 트럼프 vs 카밀라 해리스: 여론조사 선두는?



-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공화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다. 민주당 후보는 원래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지만, 7월 21일 바이든은 경선에서 물러났다. 현재 민주당 후보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다.
-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로 일했고, 2010년 주 법무부 장관으로 선출됐다. 2017년에는 상원의원이 됐고, 2020년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후 부통령이 됐다.
- 해리스는 아직 국가 단위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다. 공화당은 해리스를 바이든 정부의 높은 인플레이, 대규모 산업 정책 법안, 국제 혼란 등과 엮으려고 한다.
- 하지만 해리스에겐 젊다는 장점이 있다. 해리스는 59세로 바이든(81세)보다 22살, 트럼프(78세)보다 19살 더 젊다.
-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선 트럼프의 이민자 문제 공격을 반박하고, 바이든보다 야심 찬 국내 정책 어젠다(agenda)를 제시해야 한다.
- 한편,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으려고 국회의 사당을 공격했을 때 가담했다는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2016년 대선 때는 불법 금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는 모든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 트럼프는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 유세 중 암살 시도를 당했다. 9월 15일엔 플로리다에서 골프를 치던 트럼프 근처에서 소총을 든 암살 용의자가 체포됐다.

- 암살 시도 이후 트럼프는 자신을 통합된 후보로 내세우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가 했다. 하지만 금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정적들을 모욕하고 있다.

TheEconomist 기사

## CNNBusiness: Over 400 economists and ex-officials endorse Kamala Harris

### 4백명의 이코노미스트와 전직 관료, 해리스 지지

- CNN의 보도에 따르면 4백명 이상의 이코노미스트와 전직 관료들이 해리스 후보와 그의 미국 경제에 대한 비전을 지지하고 있다.
- 이 같은 지지 표명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이슈인 경제와 관련해 트럼프 후보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해리스가 불식시키려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좌파 이코노미스트들과 민주당 정부 즉, 바이든과 오바마, 클린턴 행정부에 관료였던 이들로 이뤄져 있다. 극히 일부는 공화당에 연관된 인사들이다.
- 이 성명서는 현재는 트럼프에 의한 불평등, 경제적으로 공정치 못함, 불확실성과 해리스와 함께 하는 번역, 기회, 언정 사이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CNNBusiness 기사

### [물류]

## NYT: A Looming East Coast Port Strike Could Shake the Economy

### 다가오는 동부 항만 파업에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 동부와 걸프만 항만 노무자들이 파업이 10월 1일로 예정된 가운데 기업체들은 수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수입하는 항만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파업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일부 수입업체들은 항만 터미널 운영업체들과 노조 간에 임금 계약이 다음 주 월요일에 끝나기 전에 평소보다 4개월 먼저 크리스마스용 제품 주문을 시작했다.
- 많은 선박들도 항만을 서부 항만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곳은 작년에 새로운 임금 계약을 맺은 다른 노무자들이 일하고 있다.
- JP모건 운송 분석팀에 따르면 동부 항만들에 파업이 일어날 경우 하루 50억불, GDP로는 6%의 손실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항만이 폐쇄되면 기존 하루치 적재량을 처리하는 데 대략 6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NYT 기사

## [부동산]

### Bloomberg: Home-Price Gains in US Slow as Affordability Pressures Buyers

#### 미국 주택 가격 상승 둔화

- 미국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7월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 때문에 주택 구매를 망설이면서 재고가 쌓였기 때문이다. S&P CoreLogic Case-Shiller에 따르면 전국 주택 가격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5% 상승했다. 6월 연간 상승률 5.5%보다 낮은 수치다.
- 대출 비용은 감소했지만 구매 여력(affordability)이 문제다. 반면, 주택 공급은 증가했다. Redfin Corp.에 따르면 7월엔 작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전반적인 주택 판매는 침체된 상태다.
- 연준은 이번 달 처음 금리를 인하했고, 추가 금리 인하도 예고했다. 이에 모기지 비용이 더 하락하고 주택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Realtor.com 수석 이코노미스트 Ralph McLaughlin은 향후 몇 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바닥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The Commercial-Property Market Is Coming Back to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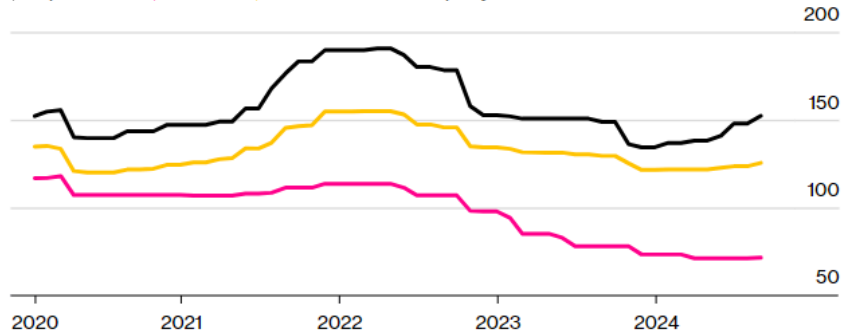
#### 상업용 부동산 시장 회복세

- 2022년 최고점 대비 19% 가격이 하락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연준이 4년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 기관과 소유주들이 새로운 투자를 원하기 때문이다. Maveric Real Estate Partners 공동 설립자 David Aviram은 “2025년엔 더 많은 활동이 있을 것이다.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이 거래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최근 몇 달 동안 빠르게 떨어졌다. MSCI에 따르면 거래량은 작년 대비 5% 감소한 2천38억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거래량은 꾸준히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곳도 늘고 있다. 플로리다 창고 포트폴리오 인수를 위해 1억2천만달러를 조달하려는 한 투자자는 주요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12건의 제안을 받았다. Jones Lang LaSalle Inc.의 Michael Gigliotti는 3개월 전만 해도 이런 거래는 4~5개의 제안만 들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 Fortress Investment Group과 골드만삭스 그룹 같은 투자 거물들은 몇 년 전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AscentDS의 CEO Robert Wasmund는 대출 수요가 두세 달 전의 2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Gigliotti는 “참가자, 가격, 지수가 모두 협력하고 있다. 새로운 유동성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 Property Prices Are Climbing Again

Commercial real estate prices rose 3% this year but are 19% below 2022 peak

Apartments Offices All Commercial Property



Source: Green Street Commercial Property Price Index

Bloomberg 기사

### [에너지]

#### Bloomberg: Data Centers Are Driving Demand for Renewable Power, EDP Says

#### EDP “데이터 센터가 재생 에너지 수요 주도”

- 미국과 유럽에서 풍력 발전소와 태양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EDP SA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EDP의 CEO Miguel Stilwell d’Andrade는 “수요가 너무 많다.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앞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 가스도 논의가 많이 된다.”라고 말했다.
- d’Andrade는 “지난 몇 달 동안 ‘판매할 전력이 있느냐’, ‘향후 몇 년간 건설 프로젝트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메가와트시당(megawatt-hour) 약 60~70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EDP의 전 세계 투자 계획 중 약 40%는 미국을 향해 있다. d’Andrade는 “미국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EDP는 자체 파이프라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행정적 부담이 업계와 인프라 구축을 발목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중국 경제]

#### WSJ: China Tries to Jolt Ailing Economy

####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 조치

- 중국 중앙은행이 약화된 경제를 지원하고 침체된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은행 지급준비율을 줄여 대출 자원을 확보할 것이라 밝혔다.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고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계약금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Pan Gongsheng 중국 중앙은행 총재는 연말까지 은행 지급준비율을 또 낮추는 등 추가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약 700억달러의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해 3천억위안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 증시 벤치마크인 CSI 300 지수는 조치가 발표된 후 4.33% 상승했다. 하지만 CSI 300 지수는 연초 이후 2.3% 하락했고, 3년 전보다 3분의 1 가량 하락한 상태이다.
-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선 부동산 경기 침체를 더 확실히 파악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Plunge Protection**

China's benchmark index rose after the central bank said it would offer loans to buy stocks

CSI 300 Index



Source: FactSet

WSJ 기사

**TheEconomist: China's AI firms are cleverly innovating around chip bans  
중국 AI 기업, 칩 규제에 영리하게 혁신 중**

- 오늘날 최고의 인공지능 모델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수많은 최첨단 프로세서에 의존한다. 소셜 미디어 대기업 Meta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 Llama3은 미국 칩 제조업체 Nvidia의 H100 GPU 1만6천개로 훈련됐다.
- 하지만 중국은 2022년 10월부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최첨단 프로세서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중국은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 스타트업 DeepSeek는 9월 초 인공지능 모델 DeepSeek-v2.5를 출시했다. 이 모델은 영어와 중국어로 된 코딩 작업에서 주요 오픈 소스 모델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DeepSeek는 Nvidia의 구형 GPU 1만 개 이상 정도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DeepSeek는 이른바 ‘전문가 혼합 접근 방식’을 이용했다. 각 작업에 적합한 여러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속도를 개선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 압축 과정을 거쳐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입력(input)을 처리할 수 있다. AI 투자 펀드 Air Street Capital의 Nathan Benaich는 “희소성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라고 말했다.

TheEconomist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More Than 4 Million Robots Are Working in Factories Worldw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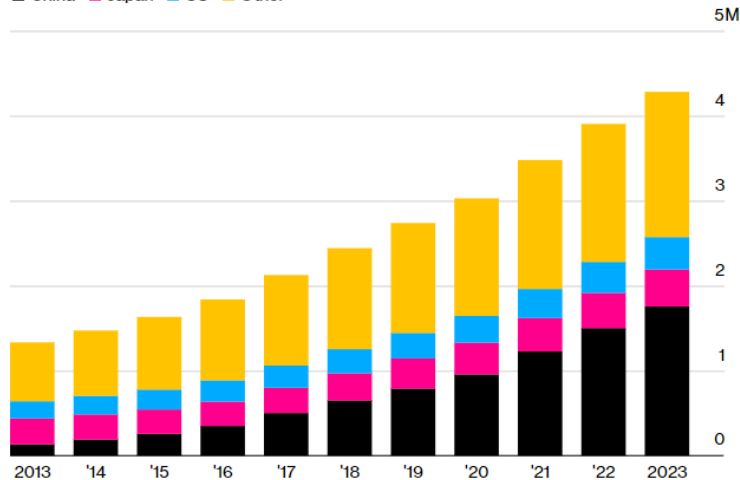
### 전 세계 공장에서 4백만대 이상의 로봇이 일한다

-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에 따르면 전 세계 공장에 연간 설치되는 로봇 수가 3년 연속 50만대를 돌파해 2023년 말 총 4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배치된 로봇의 약 70%가 아시아에, 17%가 유럽에, 10%가 미국 위주로 아메리카 대륙에 배치되어 있다.
- 팬데믹 이후 빠르게 자동화가 이뤄졌지만, 작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위 5개 자동화 국가 중 독일만 2022년에 비해 2023년 로봇 설치가 증가했다. 유럽에서 2번째, 3번째로 큰 시장인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로봇 설치가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긴축 통화 정책, 중국에 비해 취약한 유럽 자동차 산업이 투자를 위축시켰다.
-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들도 로봇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작년 인도 자동차 업계의 로봇 설치는 59% 증가한 8,510대를 기록했다. 국제로봇연맹 회장 Marina Bill은 “인도의 로봇 재고가 2018년 이후 거의 2배 늘었다. 인도는 아시아 신흥 시장 중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는 국가이다.”라고 말했다.

#### Global Industrial Robot Usage Surpasses 4 Million Units

Installations in China are up 13-fold over the past decade

■ China ■ Japan ■ US ■ Other



Sourc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Bloomberg 기사

[보고서]

**'빅컷 효과'...미국 기업들, 회사채 발행 통해 잇따라 자금 조달  
티모바일 등 우량기업 10 곳 16.2 조원 발행...신용도 낮은 기업들도 가세  
"소비심리 등에 여전히 고금리 영향...분위기 전환에 시간 걸릴 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이후 미국 기업 다수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본 조달에 나서고 있다.

23 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무선 통신사 티모바일 등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기업 10 곳이 122 억 달러(약 16 조 2 천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난주 회사채 판매액이 시장 전망을 밑돌았던 것과 대조적이며, 이번 주 200 억~250 억 달러(약 26 조 7 천억~33 조 3 천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